



Since 1969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소식지

가톨릭 메디컬 타임스

No.2312 2025.3.5

창간 1969년 11월 14일
발행인 이화성 편집인 민창기
편집·기획 가톨릭중앙의료원 홍보팀
E-mail gmcpr@catholic.ac.kr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Tel 023147 9474 Fax 023147 963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대한민국
강타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진짜 권역외상센터에 묻다.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 조항주 VS 중증외상센터 백강혁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배경은 현실 속 권역외상센터다. 조항주 교수에게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를 물었다.

Q. 주인공 '백강혁'의 행동이 파격적입니다. 다른 과를 무시한다거나 하는데, 현실에선 어떠한가요?

A 저도 8화까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우리 외상외과 교수들이 외상팀으로 가동되는 것이 제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천재여도 그렇게 혼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난이도 높은 수술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병원에서 적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 드라마를 보시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재미있게 만든 드라마를 통해 환자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사명감으로 많은 환자와 국민이 공감하고 존중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보람이 더해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Q. 드라마처럼 권역외상센터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 언제인가요?

A 대부분의 외상센터는 수술실이 2개씩 있어 2명을 동시에 수술할 수 있고, 소생실 2개와 관찰실 6개를 갖추고 있어 응급처치나 생명 연장 등의 조치를 8명까지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 각종 사고 발생 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상의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는 환자를 중증도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외상센터에 갈 환자는 보내고, 나머지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2014년 11월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아, 경기 북부권 내에서 발생하는 외상환자들을 센터 도착 후 1시간 이내에 치료 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상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고 외상환자를 직접 치료하며, 상황에 따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호출되어 즉각적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연간 200여 명의 중증외상환자를 평균 2시간 30분 안에 수술실로, 3시간 안에 중환자실로 수용이 가능한 전문센터로서 중증외상환자의 예방 가능 사망률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조 항 주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
(031) 820-5375, 5377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권역외상센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있습니다.



소아와 젊은 당뇨 환자, 심혈관·신장 합병증 및 사망 위험성 확인

성빈센트 조원경·인천성모 김성언 교수팀, 어린 연령에서 발병 시 성인기 합병증 위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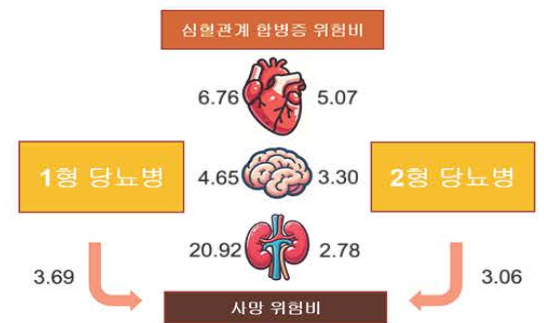
조원경(왼쪽)·김성언 교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원경 교수·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언 교수 연구팀이 소아를 비롯한 젊은

연령의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신장 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젊은 연령에서의 당뇨병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로써, 향후 예방적 관리 모델 개발과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표본 코호트(NSC)를 이용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30세 미만의 제1형 당뇨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대규모 장기 추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소아 및 젊은 연령의 당뇨병 환자들은 일반인 대비 심혈관 질환(심근경색·뇌졸중), 신부전 및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6.76배,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5.07배 높았고, 뇌졸중 발생 위험은 각각 4.65배, 3.30배로 증가했다. 신부전 발생 위험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20.92배,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2.78배 높아졌다. 또한, 사망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제1형 당뇨병에서 3.69배, 제2형 당뇨병에서 3.0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아 및 젊은 연령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합병증과 신부전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며, 조기 사망률 또한 증가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젊은 연령에서 발병한 당뇨병은 성인기



이후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당뇨병 관련 세계 최고 권위의 SCI급 국제 학술지인 미국당뇨병학회지 《Diabetes Care》(IF=14.8)에 게재됐다.



난치성 전신경화증 치료의 열쇠로 단백질 'GRIM-19' 규명

가톨릭대 의대 조미라 교수팀, 면역병인과 섬유화 감소·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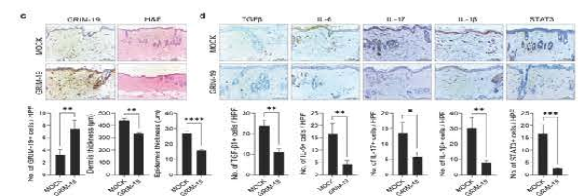
조미라 교수·박진실 연구교수·박성환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조미라 교수(공동 교신저자), 가톨릭류마티스연구센터 박진실 연구교수(공동 제1저자), 의생명건강과학과 정하연 연구원(공동 제1저자) 연구팀과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성환 교수(공동 교신저자)가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에서 미토콘드리아 이동 단

백질인 'GRIM-19(GRIM-19; the retinoid-IFN-induced mortality-19)'가 질환을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임을 밝혔다.

전신경화증은 피부뿐만 아니라 폐, 심장 등 주요 장기에 섬유화가 진행되는 난치성 자가면역질환으로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다. 모세혈관에도 발생하여 피부가 두꺼워지고 혈액순환의 방해는 물론, 폐섬유화 발현으로 호흡에 문제를 일으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연구팀은 전신경화증에서 병증 전개 시 증가하는 전사인자 STAT3와 이의 활성을 억제하며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관여하는 'GRIM-19' 단백질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전신경화증을 유도한 마우스 모델을 통해 섬유화 지표인 알파-스마(α -SMA), 콜라겐 타입1(Coll), STAT3 발현이 증가하고 GRIM-19 단백질의 수치가 감소함을 확인했다. 이에 GRIM-19 단백



▲전신경화증에서 미토콘드리아 이동 단백질 'GRIM-19' 단백질 과발현 후 섬유화 억제

질의 발현을 높이는 유전자 치료를 시행해 전신경화증 마우스에서 피부 진피의 두께가 감소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섬유화 단백질(α -SMA, Coll)의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했다. 또한, 자가면역 병인 면역세포의 감소도 관찰됐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면역연구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IF=9.5)에 게재됐다.



거자씨키움센터, 의료산업 혁신 이끄는 미래의 주역 선발

제5회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5기 미래위원 선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이경상 주교(맨 오른쪽)와 이화성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맨 왼쪽)이 2월 4일 서초평화빌딩에서 개최된 제5회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 최우수상 수상팀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거자씨키움센터(센터장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는 지난 2월 4일 서초평화빌딩에서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5기 미래위원'을 최종 선발하며 미래 의료산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인재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설립 5주년을 맞은 거자씨키움센터는 2020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돼 2021년 '제1회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미래위원을 선발, 약 6개월간의 연구활동을 거쳐 우수한 프로젝트팀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임

상현장의 실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도록 돕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2일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27일까지 총 78건의 수준 높은 혁신·창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3.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접수된 아이디어 중 세 차례 단계별 심사를 거쳐 상위 20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상위 20개 팀은 '5기 미래위원'으로 선발돼 활동하게 된다.

제5회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Anti-VEGF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i-VEGF(항혈관내피성장인자)를 방출하는 아메드 밸브(Ahmed valve) 개



노쇠·근감소증으로 인한 노인 호흡곤란 위험 최대 9배 확인

여의도성모 안태준·임지혜 교수팀, 노년 호흡기 증상 위험군 조기 발견 필요성 제시



안태준(왼쪽)·임지혜 교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안태준 교수·소화기내과 임지혜 교수 연구팀이 노인 호흡곤란의 주요 원인으로 근감소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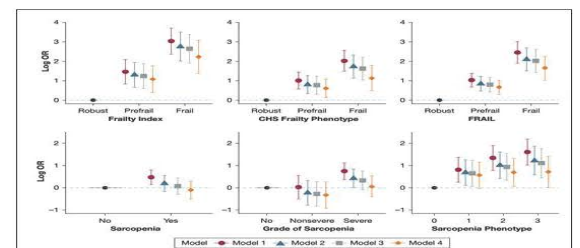
과 노쇠를 지목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노인 호흡곤란과 관련된 새로운 의료 가이드라인 마련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국내 78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평창 노인 코호트)를 통해 노쇠와 근감소증이 호흡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호흡곤란은 수정된 의료 연구 회의(MRC) 호흡곤란 척도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평가 도구를 사용해 정의됐다. 노쇠는 노쇠지수(F), 노쇠 표현형(Frailty Phenotype), 그리고 FRAIL 설문지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근감소증은 2019년 아시아 근감소증 진단 지침을 따랐다.

연구팀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나이, 성별, 만성질환,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한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호흡곤란을 겪는 그룹은 노쇠(42.6% vs 10.5%)와 근감소증(38.3% vs 26.9%)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호흡곤란은 노쇠한 경우 최소 3.09배에서 최대 9.29배 위험이 증가했고, 근감소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약 2배의 위험증가를 보였다. 또한 호흡곤란을 겪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생존율 또한 낮은 것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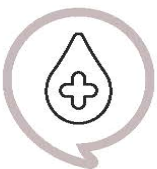
즉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노인은 만성호흡기질환뿐만 아니



▲65세 이상의 고령에서 노쇠할수록, 근감소증 표현형이 많을수록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노쇠와 근감소증에 대해서도 선별해야 하며,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호흡기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 《Chest》(IF=9.5) 최근호에 게재됐다.



다발골수종 재발 예측하는 新 미세잔존암 평가법 유용성 입증

서울성모 민창기·김명신 교수팀, 기존 검사법 대비 신속성·민감도 증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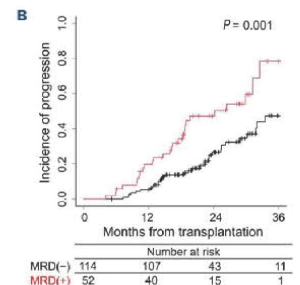


민창기·박성수·김명신·안아리 교수(왼쪽부터)

잔암 평가는 민감도도 높고 기존 검사법 대비 검사비도 낮아진료 현장에 확대 시 치료비 부담도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잔존암 검사는 최소 1만 개 이상의 세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다채널 유세포분석검사 또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가능한데, 다발골수종 치료반응 평가에도 활발히 적용 중이다. 고전적인 다발골수종 평가 방법은 약 1,000개의 세포 중 암세포 관련 정보가 있다는 것을 평가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00만 개의 세포 중 단 1개의 암세포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서울성모병원은 2019년부터 DURAClon(세포분석 항체 패널)을 활용한 미세잔존암 평가를 개발해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연구팀은 조혈모세포이식 치료 후 3~5개월에 국제골수종학회에서 제시한 '매우 좋은 치료 반응 기준'에 해



▶미세잔존암 평가 결과, 음성 상태를 1년 이상 유지한 환자 114명은 재발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

당하는 총 166명의 환자를 선별했다. 골수 샘플을 새로 개발한 평가법으로 검사한 결과, 음성 상태를 1년 이상 유지한 환자 114명은 재발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생존율도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혈액학회 공식 저널 《Haematologica》(IF=8.2)에 최근 게재됐다.

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원심력 모터를 이용한 미세침습 수술기구 건조기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보인 ▲구로파워팀이 수상했다.

5기 미래위원은 2월 14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공모전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약 6개월 동안 의료 현장에서의 혁신 또는 의료산업 아이템으로의 창업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거자씨키움센터는 미래위원팀들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컨설팅, 멘토링 및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분야별 네트워킹 및 매월 연구비 지급 등 활동 기간 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종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팀은 오는 10월 데모데이5 무대를 통해 기관 보직자 및 관련 심사위원 앞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선보이게 된다. 데모데이에 진출한 팀은 추가 보상 및 산학협력단을 통한 창업 연계 혜택이 주어지고, 해당 팀의 프로젝트는 차년도 기관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이경상 주교는 "금번 다섯 번

째 공모전도 성황리에 진행돼 그 결과가 아주 훌륭하고 앞날이 밝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올해 설립 5주년을 맞이한 거자씨키움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혁신센터로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의료와 인공지능의 융합,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성빈센트병원 안과 정연웅 교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안과의 정연웅 교수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안과 전문의다.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남기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의료 현장에 접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실험을 넘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과제를 수행하며 책임 연구자로 주목받고 있다. AI와 안과의 만남이 만들어낼 미래를 그와 함께 이야기했다.

Q. 교수님, 안과 의사이자 의대 교수로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A 어릴 적부터 심한 근시로 인해 안경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안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인턴 생활을 하던 중, 안저사진을 통해 안구 내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안과를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를 전문 분야로 삼아 연구와 진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연구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국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빈센트병원 및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데이터심의위원회, 통합정보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의료기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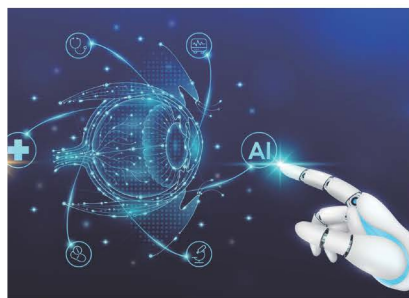
Q. 현재 어떤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A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의학적 상황 예측 모델 개발과 언어 모델을 활용한 의료 검색 능력 향상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애프터케어나 교육자료 선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AI를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기존의 동물실험 결과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연구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공지능 연구자들과 협업했지만, 원하는 연구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접 프로그래밍을 배우기로 결심했고, SQL, 파이썬, R 등의 언어

를 익혔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며 AI 모델을 개발하는 역량을 쌓았고, 의료정보학 박사 과정에서도 AI 기반 연구를 지속하며 딥러닝 아키텍처를 직접 설계하여 졸업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Q. 다른 인공지능 연구자와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AI 모델을 개발, 실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의료 양쪽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되었으며, 문제 발생 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연구자나 협력자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Q. 앞으로 의료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최근 인공지능 패러다임은 단순한 모델 개발을 넘어 기존 AI 기술을 실제 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모델을 활용해 환자 교육을 강화하고, 애프터케어와 원격 모니터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과도 맞물려, 보다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연구자이자 임상의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A 자신의 발전과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고비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것들은 나에게도 역시 어려운 것이며,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에 성취하지 못해 이내 실망하고 포기한다면 절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만 더 도전해 보면 성공이 그 너머에서 미소 짓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칠 수는 있으나 의

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환자들에게 어떤 의사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A 감별진단을 잘하는 의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신경안과 질환은 다양한 질환과 연관되어 있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안과 지식뿐만 아니라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특히 류마티스, 내분비, 종양),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의 광범위한 질환과도 연관이 있어, 안과적인 지식과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경우 직접 혈액검사, 영상의학 검사를 추가해 질환의 위치를 특정하고 원인에 맞춰 해당 과로 환자를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과적 지식은 물론 다른 임상과의 지식도 필요함은 물론, 특히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에서 최소한의 증상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감별진단에 자신을 가지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A 의료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질환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되고 조절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뿐만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노력도 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연웅 교수는 안과 전문의로서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AI 연구를 통해 의료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넘어,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에 기여를 목표로 한다. 앞으로 그의 연구로 인한 의료와 인공지능의 융합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복싱부터 책 집필까지, 하루하루를 다채롭게 채우는 '갓생러'

의정부성모병원 사회사업팀 정민재 사회사업가

취미활동은 이제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갓(God)과 인생(生)을 합친 합성어인 '갓생'은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 또는 일상에서 소소한 성취감을 얻는 삶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주목받는 라이프스타일이다. 의정부성모병원의 정민재 사회사업가는 에너지 넘치게 움직이는 동적인 취미부터, 조용하게 실내에서 즐기는 취미까지 매일매일을 알차게 채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빈틈없이 삶을 채우는 진정한 '취미 부자', '갓생러'인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성모병원 사회사업팀에서 근무 중인 2년차 새짜 의료사회복지사 정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전인적 치료를 목적으로 사회복지 전문기술을 통한 상담 및 자원 연계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성모병원의 특화 자선사업인 생명존중사업 '함께'를 담당하며 무릎퇴행성 관절염과 안과 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 사회 취약계층 환자분들의 진료비 지원과 사회복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싱, 크로스핏, 헬스처럼 에너지 넘치는 취미를 즐기신다고요?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유년시절부터 꾸준히 축구, 풋살, 농구, 러닝처럼 활동적인 취미를 즐겨왔습니다. 작년에는 복싱과 크로스핏에 집중했다가 현재는 헬스를 배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러닝은 언제나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공연대'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부대 특성상 운동량이 굉장히 많았기에 어느 순간부터 운동 능력이 향상되어 있었고, 전역을 할 당시에는 18kg 정도 감량된 건강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점점 운동이 즐거워졌고, 건강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니 운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운동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꾸준히 운동같은 취미를 즐기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취미는 기한이나 기준에 국한되지 않고 삶에 의미와 성취감을 부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 내·외부로 변화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고, 체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근무 중에는 업무에 집중

하고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장점들을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다음을 기다리며 매 순간이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취미활동은 물입을 통해 잠시 현실과 분리되어 스스로를 환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취미는 자기의 존재를 지키면서도 성장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과업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저에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주고 있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작년 11월에 한국당뇨협회에서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진행했던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했던 순간입니다. 작년 6월에 첫 번째 마라톤에 참가했을 당시 50분 아래로 완주를 목표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대회를 알게 됐고, 의료기관 종사자로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과 상담하고 공부했던 순간들 중 "당뇨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보다 마라톤이다."라는 이야기가 떠올라 나름의 의미도 있어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약 3~4개월간 준비 후 두 번째 대회를 완주했을 때 느껴졌던 감동들은 복잡미묘했습니다. 기록을 달성했다는 성취감도 있었지만, 10km를 달리며 느꼈던 육체적인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정신적인 노력이 당뇨를 관리하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고통과 닮았겠다고 몸소 느껴보고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종류와 강도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잠시나마 공감하고 그 속에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녹아들어 삶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의미를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운동 외의 다른 취미도 있나요?

사실 운동은 많은 취미들 중 하나일 뿐인데요, 대표적으로 휴먼테리어, 향수 모으기, 독서, 글쓰기와 같은 정적인 활동들과 틈틈이 영상 촬영 및 편집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제주도, 동해 스키클럽, 서울 근교에 '나홀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독서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문집이나 단편소설집을 주로 읽고



있는데요, 삶의 조각들을 본인의 방식대로 풀어 기록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되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신년 목표로 '내 삶을 기록한 책 집필하기'를 세웠습니다.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 소중함, 즐거움, 감동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게 해 준 순간들을 나만의 언어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록을 시작했고, 이번 년도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과물로 도출해 내고 싶습니다.

'취미 부자'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의료기관은 생·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의 환자나 보호자분들을 마주합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그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전문가로서 어려움을 이해하고 문제를 사정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누적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에 대한 관리도 전문가로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를 즐

기며 개인적인 성취와 만족감을 얻기도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체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삶을 이루고 있는 조각들을 퍼즐처럼 잘 맞추어 본인을 이루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에서 자기(self)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취미는 저의 삶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작지 않은 큰 조각으로서 저의 삶을 이루고, 다른 삶의 순간들에 영향을 주며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암 치료, 이제 1주일 내로! 은평성모병원 암센터

은평성모병원 암센터는 환자 맞춤형 치료, 신속한 진료 및 검사, 최신 치료법 도입, 그리고 환자 중심의 통합 케어를 통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10개의 다학제 협진팀이 환자의 치료 여정에 동반자로 함께하며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보다 빠른 암 치료'를 위해 예약부터 진료까지 1주일, 진료 후 검사까지 1주일 내로 완료할 수 있는 'One week service'를 구축하고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담 코디네이터, 빠른 진료 예약 및 검사, 다학제간 치료 계획 협의 등을 통해 암 환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료 결과에 좋은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성모병원 암센터는 다양한 임상과 간의 다학제 진료를 토대로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 각 환자의 병력, 생활 습관, 신체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한 환자의 건강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트루빔은 물론, 최신 영상 장비(SOMATOM X.Ceed 등) 보강, 두 대의 4세대 로봇수술기를 난도 높은 중증질환 수술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며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외과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빠른 회복과 완치를 극대화한 맞춤형 폐암 수술



은평성모병원의 폐암 협진팀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2024년 은평성모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은 532명 중 절반 이상이 제주도,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온 환자들이다.

은평성모병원 폐암 수술이 유명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2~3cm의 절개 창 1개로만 수술을 하는 단일공 흉강경 수술이다. 상처가 작으니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은평성모병원의 모든 폐암 수술은 단일공 흉강경 수술로 시행되고 있어 수술 후 합병증이 적고 예후도 매우 좋다. 초기 폐암뿐만 아니라 2기나 3기 폐암도 모두 단일공 흉강경 수술을 적용할 수 있다. 폐암 수술에 100% 단일공 흉강경 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은평성모병원이 유일하다.

둘째, 환자 맞춤형 폐 부분 절제 수술이다. 폐암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예측한 뒤 폐암의 상태에 맞게 폐를 보존하며 수술한다. 폐암의 진행 단계와 관계 없이 폐를 크게 잘라 버리는 폐엽 절제술을 시행하는 많은 병원들이 있으나, 은평성모병원에서는 폐를 보존하면서 폐암에 대한 예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 폐의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폐의 구역을 정확하게 절제하는 것은 매우 고난이도인데, 은평성모병원은 이런 폐 구역 절제술을 완벽하게 시행하고 국내 최다 경험을 자랑한다.

셋째, 환자의 만족감을 최대로 높이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다.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폐암 수술팀은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다. 은평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폐암 환자들은 그 치료에 감동하여 그들의 경험담을 꾸준히 주변에 전파하고 있다.



간담체암팀



갑상선암팀



대장암팀



환자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

Q 10개 암종별 다학제 협진이 이루어진다고요?

은평성모병원 암센터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밀 의료 기반 유전체 분석과 최신식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시행하며, 10개 암종별 다학제 협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협진팀에는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양한 전문의가 참여해 개별 환자의 병력, 생활 습관, 신체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안합니다.

과 '최소 침습 수술'로 고난도 암 수술 선도!



다학제 협진과 최첨단 치료, **식도암** 환자의 희망



식도암은 진단 시 상태에 따라 내시경 절제술, 수술, 항암-면역치료 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치료 전 전략을 긴밀하게 세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도암을 포함한 위암 협진팀은 다학제 진료를 통해 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지체되지 않도록 치료를 진행한다. 식도암 세포가 점막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소화기내과에서 내시경 절제술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최종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경과관찰을 하거나 추가적인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수술을 최첨단 로봇수술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갑상선외과와의 협진을 통해 경부 림프절 박리 및 문합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다. 은평성모병원 개원 이후 식도암 수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20건의 수술을 시행했고, 총 50례 이상의 식도암 수술에서 단 한 건의 사망도 없었을 정도로 정교한 수술 및 체계적인 수술 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최신 트렌드에 맞춰 항암-면역치료 요법을 식도암 수술에 적용하고 있다. 식도암 병변이 천공이 되었던 환자에서도 거의 완치를 이뤄낼 만큼 체계적인 항암-면역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식도암 치료의 핵심인 방사선 치료도 개원 당시 최고의 방사선 치료기 트루빔(True Beam)을 활용하여 진단 당시 절제가 불가능했던 환자들의 식도암 병변을 작게 만들거나 완전히 없애는 등의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식도암 치료는 협동과 조화를 필요로 한다. 본원은 협진팀 내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은평성모병원을 신뢰해 찾아오시는 환자들에게 최고의 진료를 통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신 치료 도입, 한계를 넘어앞서가는 **췌장암**



은평성모병원 간담췌암팀은 간암, 췌장암 및 담도담낭암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학제 협진팀이다. 췌장암과 담도담낭암은 초기 단계에서 특이적인 임상 증상이 거의 없어 진단 시점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췌장암은 여전히 전체 암 중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중 하나이며, 담도담낭암 또한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진료와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췌장암 조직 검사는 주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혹은 초음파내시경(EUS)을 통해 이루어지며 은평성모병원의 진단 정확도는 98% 이상을 자랑한다. 최근 췌장암 및 담도담낭암 치료 분야에서는 최소침습적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도입으로 인해 수술 후 합병증이 감소하고 회복 속도가 향상됐다. 또한, 면역항암제 및 표적치료 항암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치료 성적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치료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진행성 췌장암 및 담도담낭암에서 수술 전 항암 보조요법을 활용한 완치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ERCP 및 경피적 담도배액술(PTBD)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 급여 시술로 도입된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담도 또는 담낭 배액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췌장암 및 담도담낭암은 여전히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암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신 치료법의 발전과 함께 다학제적 협진을 통한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향후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경부암팀**

 **부인암팀**

 **비뇨기암팀**

 **위암팀**

 **유방암팀**

 **폐암팀**

 **피부암팀**

Q 가장 적합한 치료를 가장 빠르게!

암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한 진료 및 검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진료 후 1주 내에 필요한 모든 검사를 완료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빠르게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즉각적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통해 치료 지연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생존율과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Q 세계 수준의 최신 치료 기술

은평성모병원 암센터는 최신 치료 기술을 적극 도입해 환자 중심의 최적 치료를 제공합니다. 로봇수술을 포함한 최소침습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후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식 방사선 치료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사선 치료를 제공하며, 표적치료 및 면역치료를 포함한 정밀 의료 기반 맞춤형 항암치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춘 최적의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Q 환자 중심의 통합 케어에 앞장섭니다

암 치료는 단순한 의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평성모병원 암센터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영양 상담, 재활 치료, 정신 건강 상담 등의 통합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이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생존자 클리닉을 통해 장기적인 건강 관리와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은평성모병원 암센터장
대장항문외과 **김형진** 교수



생의 말기에도 한결같은 인간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전합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중앙의료윤리사무국장 **박은호** 신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중앙의료윤리사무국장 박은호 신부는 2006년 사제로 수품된 후 이탈리아에서 생명윤리를 공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이다. 2017년 CMC에 부임한 후 8개 부속병원 임상의료윤리위원회 운영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명대학원 강의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활동도 병행한다. 박은호 신부는 한국 사회 전반의 여러 생명윤리적 문제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과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하여 문답을 게재한다.

Q. 어떠한 점에서 우려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의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에게 무익한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 여부를 말기(죽음을 수개월 앞둔 상태)에 결정하고, 임종 과정(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야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이행 시기를 임종 과정에서 말기로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이행 시기 확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요?

이러한 개정안이 조력사 관련 법률안 제정과 맞물릴 경우, 환자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 기능이 없거나 취약한 환자들이 경제적 문제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짐으로써, 사실상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관련해 생명의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전하고픈 말씀이 있으시다면?

(법 개정 및 제정을 통해) 임종 과정을 없애고 연명치료 중단 이행 시기를 앞당긴다고 해서 생의 말기에 대한 적절한 준비와 결정이 미리 이루어지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해당 논의를 일찍 시작함으로써 현행법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적어도 CMC 의료진들은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고 숙의하는 문화를 정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수개월 앞둔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행위가 중단되도록 허용하는 법은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자가검진으로 찾아낼 수 있는 유방암

스스로 살펴보는 자가검진으로 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있을까? 주기적인 자가검진이 권장되는 질환은 바로 유방암이다. 우리 몸 깊숙하게 숨은 장기들에 비해 유방은 비교적 간단한 자가검진을 통해 매월 유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유방암 발생과 증가의 원인을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지방·고칼로리 식사 등 서구화된 식생활과 그로 인한 비만, 그리고 유전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 늦은 결혼과 출산을 저하, 이로 인한 수유 감소,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으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증가한 점도 요인으로 생각된다. 유방암은 통증, 멍울, 유두분비물, 비대칭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유방에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병원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가검진은 생리 끝난 직후부터 일주일 전후에

자가검진은 폐경 전 여성의 경우 생리가 끝난 직후부터 일주일 전후, 폐경 후에는 일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

먼저 거울 앞에서 눈으로 확인하는데 ▲한쪽 유방의 크기가 평소보다 커진 경우 ▲유방 피부가 굴뚝처럼 변한 경우 ▲유두나 유방 피부가 보조개 같이 움푹 들어간 경우 ▲유두에서 진물이나 핏빛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는 전문가의 진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눈으로 확인한 후에는 손가락을 펼쳐서 2, 3, 4번째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누르면서 유방 전체를 체크하고 멍울이나 유두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자가진단은 예비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유방외과를 통한 정기적인 검진을 권장한다.

● 잦은 음주를 삼가고, 적절한 운동이 도움돼

비만은 폐경 후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운동과 같은 신체적 활동은 호르몬과 에너지 균형에 좋기 때문에 일주일에 5회 이상 한 시간 정도의 운동을 지속하면 도움이 된다. 피해야 할 습관 중 하나는 음주인데, 어떤 주종이든 하루 알코올 10g, 즉 맥주 기준 250cc를 섭취하면 폐경 여부와 관계없이 유방암 발생률이 10% 정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Q 대전성모병원 외과 **김동주** 교수

진료 분야 유방질환 감상선 질환 최소침습 수술, 로봇수술
진료 시간 [오전 월, 목 [오후] 수



다른 그림 찾기

서로 다른 부분 3곳을 찾아보세요.

응모하기



서로 다른 3곳을 체크해 사진 촬영하신 후 QR코드를 인식해 응모해 주세요. (2025.3.20.까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각 30,000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김*성
김*연
오*진

▶ 당첨자분들께는 휴대폰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웃놀이 한마당으로 병원에 피운 웃음꽃”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2월 12일 수요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성요셉관 5층에서 흥겨운 '교직원 웃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천성모병원 교직원 웃놀이 한마당은 교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타부서 간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매년 정초 사목화와 원목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웃놀이 한마당에는 총 37개 팀이 참여했으며, 응원단까지 합세해 200여 명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화합을 다졌다.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 고객 중심의 건강관리 동반자

13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수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가 '2025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건강검진센터 부문에서 13년 연속 수상을 차지했다. 이는 고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센터의 성과를 보여준다.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는 1980년 대한민국 최초

의 건강검진센터로 출발해 40년 넘게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강검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왔다.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예약부터 결과 상담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의료진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최신 검진 장비를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차별화된 경쟁력 중 하나다. 2023년에는 256채널 CT와 초음파, 유방촬영 장비를 새롭게 교체했으며, 2024년에는 최신 기종의 3T 해상도를 갖춘 MRI와 내시경 장비를 교체 도입해 한층 정밀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이 한 공간에서 모든 검진을 마칠 수 있는 원스톱 동선을 구축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검진 이후의 사후 관리에서도 단순히 검진 결과를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생활습관 개선 컨설팅을 포함한다. 이 서비스는 고객 개개인의 건강관리 주기에 따라 맞춤형 추적검사를 안내하며, 평생 건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는 단순히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곳을 넘어, 고객의 평생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13년 연속 수상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품질 개선을 통해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의도성모병원 AI 기반 의료 기술로 스마트병원 전환 가속화 실시간 심정지 예측 AI 시스템 구축 및 AI 기반 안과 EMR 국내 최초 개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AI 기술을 의료 현장으로 빠르게 도입하며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최근 '심정지 예측 AI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에 나섰다. AI 기반 심정지 예측 시스템은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심정지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한다. 심박수, 혈압, 호흡수, 체온 등 주요 생체 신호와 혈액검사 결과 및 환자의 나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진이 위급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시스템 대비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이 기술은 의료진의 판단력을 보조하며 더욱 정밀한 치료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안과병원은 2024년 AI 바우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전자 의무기록(EMR)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황용주 교수 연구팀(윤경·윤혜연 교수)은 이미지 생성 의료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안과 이미지 생성형 AI'를 개발했으며, 임상 현장의 니즈를 반영해 기본 차트, 망막, 녹내장, 백내장맞춤형 표준 차트 서식을 제공하고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해 의료진이 보다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의무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시야 예측을 위한 생성형 딥러닝 모델 연구'는



2024년 미국안과학회(AAO)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로 선정되며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연구팀은 AI 바우처 지원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의료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 솔루션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향후 거대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



가톨릭대 간호대학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우수사례 기관 선정

라온시뮬레이션센터 개소·실습교육 인프라 확대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간호교육 선도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의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다.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은 질

높은 시뮬레이션 교육 확대를 통해 간호학생과 간호사의 현장 적응력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 실습교육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간호대학은 사업 선정 이후 라온시뮬레이션센터(LAON Simulation Center)를 개소했으며, 고성능 시뮬레이터와 몰입형 가상현실 장비를 구축하는 등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 확대 및 역량 강화 교육·워크숍을 운영해 왔다. 학부 교육과정에 시뮬레이션 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몰입형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습 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의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역량 강화사업, 시설이용사업(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중소병원 간호사, 인근 간호대학 학생 대상)을 집중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주영 라온시뮬레이션센터장은 "앞으로도 간호대학은 우수한 교육 환경 지원을 통해 실제 간호 현장에서 실무역량을 발휘하며, 간호 인재 양성 및 간호교육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바이오코어 퍼실리티센터, 한국파스티르연과 MOU



서울성모병원 바이오코어 퍼실리티센터(센터장 조영석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한국파스티르연 구소(소장 장승기)와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 창업 생태계 지원 활성화 및 연구시설 장비 활용 등을 위한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 기관은 유망 바이오벤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기술의 이용 촉진과 업무 교류,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전문 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시범 지정



서울성모병원이 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정은 신·변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검사 역량을 확보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검사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이는 서울성모병원의 우수한 감염병 진단 역량과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최근 진행된 현장 평가에서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운영 요건, 기술 요건, 검사 요건 59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울성모병원은 향후 3년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청 주관 모의훈련 및 공동 숙련도 평가 등 감염병 위기 관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의정부성모병원

우수내시경실 인증 획득

의정부성모병원이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의 '우수내시경실 인증제'에서 최고 수준의 인증을 획득하

며, 내시경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과 환자 안전 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은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진의 전문 역량, 첨단 장비 및 시설, 감염 예방 체계 등 6개 핵심 영역의 9개 필수 항목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기반으로 수여된다. 특히 이번 인증은 전문 평가단의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인증 유효기간은 2027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지역 소방서와 응급의료체계 강화 간담회



의정부성모병원은 지역 소방서와 손잡고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권역 내 소방서를 방문해 진행되었으며, 비상진료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구급대원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의정부성모병원이 소방청과 함께 운영 중인 119 Helo-EMS 사업과 권역외상센터 경험을 바탕으로,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 체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은평성모병원

GTX-A 노선 연신내역 개통으로 의료 접근성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가 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에 이르는 GTX-A 노선을 신규 개통하고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 GTX-A 노선 연신내역 신규 개통으로 이용객은 서울역에서 연신내역까지 약 5분,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연신내역까지 약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됐으며, 은평성모병원을 방문하는 내

원객은 연신내역 6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은평03-2번을 이용하면 병원 내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내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원객의 의료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확대됐다.

암센터 비뇨기암 세미나 개최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비뇨기암 세미나를 개최해 '방광암 극복의 길 : 예방에서 치료까지'를 주제로 환자, 보호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발이 잦은 질환인 방광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비뇨기암 다학제팀에서 준비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비뇨의학과 김상훈 교수의 '비근육침습성 방광암에서 방광 내 약물 주입요법', 비뇨의학과 이규원 교수의 '방광암의 예방 진단 및 치료', 종양내과 고윤호 교수의 '방광암의 항암치료'를 주제로 방광암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인천성모병원

이웃사랑 성금 2,500만 원 전달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부평2동, 부평3동, 부개1동, 일신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사랑 나눔' 성금 2,5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한 것이다. 교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모금된 이번 성금은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홀몸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다. 홍승모 모시놀 인천성모병원장은 "교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따뜻한 정성이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정



*기관별 / 가나다 순

대한의료정보학회 정보의학학술상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 고태훈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가 최근 2024 대한의료정보학회 정보의학학술상을 받았다. 고 교수는 특히 의료 인공지능(AI)과 데이터 2차 활용 촉진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선도하며 학문적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이과학회 17대 회장 취임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박시내 교수가 대한이과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교수는 학회 발전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국제적인 귀 질환 연구와 학술 교류의 중심에 대한이과학회를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국제골절외상연구학회 올해의 교수상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세원 교수가 최근 국제골절외상연구학회 '올해의 교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AO Trauma Korea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교육과정에서 이 교수가 뛰어난 교육자로서 남다른 열정과 지식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대안검안학회 이원희 학술상



부천성모병원 안과 김은철 교수가 대안검안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원희 학술상(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눈물층의 기질 금속단백분해효소 9 검사와 건성안의 증상 및 징후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제최소침습척추학회 최우수논문상



은평성모병원 신경외과 허정우, 홍재택, 김동훈 교수팀이 최근 최소침습척추학회 국제학술대회 'World MISS 2024'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허 교수팀은 척추 수술 후 척추주위 근육 위축 예방을 위한 이텔로콜라겐 근육 내 주사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문약사 시험 합격



대전성모병원 약제팀 류지현 약사가 '제2회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 전문약사 자격을 얻었다. 류 약사는 감염 분야에 응시, 전문약사 자격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CMC 핵심가치교육 소통의 창 2.0 개발 완료

6차 전체 워크숍 통한 최종 결과 보고 3월부터 본격 교육 실시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CMC)은 최근 '소통의 창 2.0' 핵심가치교육의 최종 6차 전체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교육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CMC의 영성과 핵심가치를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고, 직원들의 공감과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됐다.

'소통의 창 1.0'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되었으나, 이후 CMC 교육 개편으로 잠정 중단됐다. 이에 CMC는 변화된 환경과 조직 요구를 반영해 2023년부터 약 1년 6개월간의 교육 개발과 사내강사 선발 및 양성, 시범교육 끝에 '소통의 창 2.0'을 완성했다.

새로운 교육 과정은 총론, 전인치유, 생명존중, 사회적 책임 등 4개의 강의 모듈로 구성되었다. 강의, 실습, 토론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활용하고, 교육 영상 개발 등을 통해 교직원들이 핵심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총 37명의 교직원 사내 강사가 양성되어 교육 개발뿐만 아니라 강의를 직접 담당한다.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소통의 창 2.0' 교육은 의료원 교육팀에서 주관, 1년간 약 1,200명의 직할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차별 교육과 단독 운영 과정을 병행하여 총 30차례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과거 소통의 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5년차 이상 의 전 교직원이 대상이다.



CMC 사내강사 운영위원회는 교육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프로그램을 보완할 예정으로, 향후 3년 이내에 교육 대상 교직원의 90% 이상이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새롭게 5년차에 편입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CMC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핵심가치를 내재화하고,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영성과 정체성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작은 용기가 큰 기대를 만듭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차용기 대리, 발전기금 총 1천만 원 회사

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예산팀 기초의학사업추진Unit의 차용기 대리가 성의교정 의생명과학교실 발전기금과 서울성모병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차용기 대리가 가톨릭학원의 오랜 시간 이어진 인연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대학교 학사과정을 가톨릭대학교에서 수학 후 2017년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입사한 9년 차로, 벌써 10년이 넘는 기간을 함께하고 있다.

차용기 대리는 "새로운 경영방침인 '기대와 용기'가 선포된 후 그 뜻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다."며 "기관과 내 자신을 위한 발전에 기대를 품고 용기를 내어 결정했다."고 기부 계기를 밝혔다. 또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기초의학사업추진단과 미래 사업인 양성자치료센터가 기대를 품고 용기 있게 발전하길 바랐다.

차용기 대리는 이번 후원으로 "기관의 사업수행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여러 부서의 선후배 직원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격려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년 1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호스피스연구소(WHO협력센터) 발전기금				직접판매공제조합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				강석정				820,000원				• 현물(법정기부금)				강국가공			
김용관	10,000,000원	익명	60,000원	3,000,000원				• 소아청소년과 연구기금				김민정				2,000,000원			
박현수	10,000원	노종현	10,000원	서울성모병원				강숙희				부천성모병원							
천소아	10,000원	연정열	10,000,000원	• 병원발전기금(위임)				•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술술바람) 발전기금				• 성가(자선회)							
이하정	매월 10,000원	최원진	10,000원	• 성모자선회				박혜진				황생복				김건			
김성수	30,000원	홍선주	매월 10,000원	익명1 30,000원				• 어린이학교 발전기금				윤도선				이용희			
김엘리사벳	70,000원	오영주	100,000원	익명2 10,000원				노명숙				김현기				김화산			
익명1	1,000,000원	익명2	500,000원	익명3 50,000원				• 혈액내과 연구기금				부천성모병원 영상의학팀				윤희로			
익명3	300,000원			장부순 500,000원				김은기				유현경							
• 생명존중기금(의료원위임)				김태은				• 병원발전기금(위임)				이선열							
익명	20,000원	김성수	30,000원	김태은				• 성모자선회											
김엘리사벳	70,000원	오영주	100,000원	최희원				김경민											
익명1	1,000,000원	익명2	500,000원	황설연				김수빈											
익명3	300,000원			최희원				김지현											
•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소아)				최희원				성희재											
오혜림	100,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이유순											
가톨릭메디컬엔젤스 발전기금				익명1 1,000,000원				임소현											
익명	매월 10,000원			익명2 2,000,000원				전위리											
대학(성의교정)				민준홍				정지영											
• 일반대학원 장학금				정재원				정지영											
(제)가톨릭의과대학 내과연구재단				민준홍				정지영											
17,500,000원				민준홍				정지영											
• (혜산)보건대학원장학금				민준홍				정지영											
혜산장학회				민준홍				정지영											
2,400,000원				민준홍				정지영											
• 보건대학원 장학금(대한산업보건)				민준홍				정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사)				민준홍				정지영											
1,200,000원				민준홍				정지영											
• 어도배정철장학금				민준홍				정지영											
배정철				민준홍				정지영											
20,000,000원				민준홍				정지영											
• 의대동창회 장학금				민준홍				정지영											
(제)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총동문회장학재단				민준홍				정지영											
5,187,000원				민준홍				정지영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TEL. 02-2258-7991~6 FAX. 02-2258-7994 E-mail. cmcfund@catholic.ac.kr 카카오톡. "CMC 발전기금" 검색

▶ 생명존중기금(일반후원)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700-920886 (예금주: 가톨릭중앙의료원)



모바일 후원
바로 가기



산학협력단 우수연구자 초청의 밤 'Connect & Collaborate' 개최

대학 우수 연구 성과 및
산학협력단 비전 공유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전략 수립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설립 2주년을 맞아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연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활발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우수연구자 초청의 밤(Connect & Collaborate)'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단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년간 가톨릭대학교의 연구 발전에 기여한 우수연구자 75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고, 산학협력단의 향후 비전을 발표하며 연구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연결(Connect)'과 '협력(Collaborate)'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이번 행사는 대학 내 연구자들이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내 연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연구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연구 비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연구,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해 주목합니다(김명신 산학협력단 연구감사실장)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김성원 성의교정 연구부처장) ▲도전으로 한계를 넘고, 성장으로 미래를 열다(김태민 산학협력단 산학부단장)와 같은 발표가 이어졌다.

조석구 산학협력단장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성장은 연구자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연구중심병원, 연구중심대학 등 연구가 기관의 핵심 자원이 되는 시대에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함께 걷는 동반자



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산학협력단은 앞으로도 연구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학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성모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곳을 평가해 선정된다. 인천성모병원은 안전보건 체계 구축, 인식 수준, 조직문화, 건강증진활동 등 총 7개 부문 43개 항목 종합 평가를 거쳐 교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인천성모병원은 교직원들의 건강증진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내안의 톱'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힐링요가 ▲교대근무자 대상 요가 원데이클래스 ▲자세교정 및 통증감소를 위한 전문가 코칭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플라워 가드닝 등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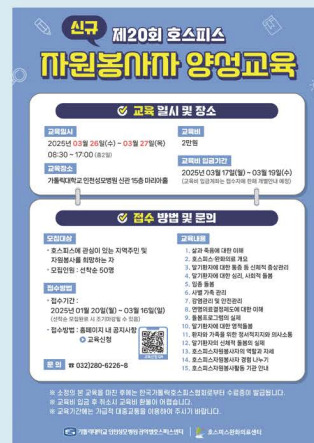


신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개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3월 26일, 27일 양일간 본원 신관 15층 마리아홀에서 '제20회 신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6일까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주관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내용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개요 ▲말기환자에 대한 통증 등 신체적 증상관리 등이다.

한편, 인천성모병원은 2019년 권역별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된 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수행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성빈 센트

미얀마에 의료의 손길을 뻗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성빈센트자선회는 최근 미얀마 더공 세칸 지역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조윤성 교수(산부인과)를 단장으로 윤재승 교수(내분비내과), 안호정 교수(종양내과), 최경은·이소현 간호사(간호부), 이해란 파트장(기능검사팀), 윤상철 선임(재활치료팀) 등으로 구성됐다. 봉사활동 동안 성빈센트자선회 무료 진료소는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현지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에 봉사단은 쉴 새 없이 외래진료 및 검사, 약 처방 등을 시행했으며, 총 399명의 현지 주민들을 진료했다.

한편, 성빈센트자선회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필리핀 의료 봉사활동을 시행한 바 있으며, 미얀마에서 의료 봉사를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빈센트자선회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보다 체계적인 의료 지원과 의료 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에 '장벽 없는 병원'으로 한걸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지난 2월 6일 '장벽 없는 병원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드는 변화'를 주제로 시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성빈센트병원 교직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경기도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수원 시청 장애인복지과, 한국실명예방재단과 관련 A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시각장애 환자 국내 현황과 국가정책지원 내용 ▲시각장애인의 의료 이용 시 문제점 및 실질적 삶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등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패널 토의 세션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시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별도로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향상 방안도 소개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SG로 그리는 따뜻한 의료의 미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ESG 위원회를 중심으로 병원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ESG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친환경 의료 실천과 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병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병원, 윤리적으로 공정한 병원'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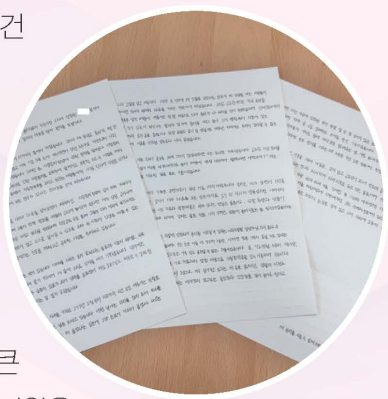
한편, 서울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은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영성구현을 실천하고자 2021년부터 취약청년지원사업인 '이어줄 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설보호아동, 학교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치과치료, 문신제거, 흉터치료를 제공하는 지원으로, 특히 지원항목이 그동안 국가와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받기 어려운 사각지대 항목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이어줄 꿈'은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그 효과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 ESG 경영 우수사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올해부터는 '이어줄 꿈' 사업의 대상이 확대(은둔청년, 가족 돌봄 청년 추가)되어 더 많은 취약 청년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치료를 넘어 희망을 선물하는 흉터 치료 지원사업

서울성모병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흉터 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치료를 받은 한 20대 청년은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교도관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어린 시절 힘든 환경을 겪으며 생긴 흉터는 그의 자립과 도전에 큰 장애물이었지만, 서울성모병원의 지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청년은 "흉터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까 봐 두려웠지만, 이번 치료 지원으로 희망을 찾았다."며 감사를 전했다.

흉터 치료는 단순한 외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북돋아 준다. 또한,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울성모병원의 꾸준한 지원이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치과 치료 지원, 따뜻한 나눔 실천

서울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치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미래를 위한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최근 치과 치료 지원을 받은 한 환자는 성인이 된 이후 치과 치료가 필요했지만 높은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미뤘었다. 그러나 서울성모병원의 지원을 통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치료를 받으며 받은 따뜻한 도움을 기억하며, 저도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정기 후원을 시작한 최 씨의 이야기는 ESG 경영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

치과 치료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며, 이들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



당신의 건강 파트너!

여의도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 1661-7575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 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sungmo.or.kr

노쇠와 근감소증

노인 호흡곤란의 강력한 예측 요인

| 호흡곤란 발생 위험, 노쇠한 노인에서 **최대 9배 증가** |

| 근감소증 정도 심할수록 **2배 위험 증가** |

체스트 (Chest, IF=9.5)

2024년 12월호



호흡기폐암센터

안태준 교수

[오전] 화, 수 [오후] 목



소화기내과

임지혜 교수

[오전] 월, 화, 목

노쇠·근감소증, 노인 호흡곤란 위험 **최대 9배** 높인다

“노년층에서 운동 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없거나 **병원 정밀검사에서도 경미한 이상**만 있는 경우에는 호흡곤란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숨이 찬 환자에게는 **노쇠·근감소증 선별검사**가 필요하며, 이는 **만성호흡기질환**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안태준 교수]

“노쇠는 **변비와 같은 소화기 증상**뿐만 아니라 **호흡기 증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노쇠와 근감소증 관리**는 **노인 의료의 필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임지혜 교수]

▶ Youtube meet the Yeouido St. Mary's Hospital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ujb.or.kr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A등급 획득!**

2024년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 **최상위 A등급 획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통해 골든타임 지키는 의료서비스 제공





부천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1577-0675

영 육 치 료



건강, 그 이상의 행복 실현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bucheon.or.kr

로봇수술 1,000례 돌파

인·부천지역 대학병원 중 최단 기간 기록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 과

이비인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로봇수술 특화 전문 의료진

최 신 기 종 로 봇 장 비

맞 춤 형 환 자 관 리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ep.or.kr

최상의 진료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6주기 꽃 봉헌식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은 국내 최초 장기이식 전문병원으로 '최상의 진료를 통한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50년 이식 역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선종을 기념해 꽃 봉헌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뇌사 장기 기증자를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장기이식병원 내 기억의 벽(Wall of Remembrance)을 조성해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소중한 생명 나눔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기이식병원 의료진들이 직접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올바른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황정기 병원장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 메디칼타임즈 공동기획 연재칼럼

1회 Pro Vobis et pro multis(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를
포함해 총 27회의 연재칼럼으로
장기이식병원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연재칼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